국내
마감시황

2026.2.24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상승

AI의 산업 파괴 우려 확산, 반도체는 수혜 기대

기관, 코스피 약 2.4조원 순매수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969.64pt (+2.11%)	1,165.00pt (+1.13%)	886.88pt (+2.47%)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45.70 원 (+2.8 원)	3.5560% (-2.2bp)	6,870.00pt (+0.27%)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2,858 억	+2,406 억	+3,386 억
외국인	-1,864 억	-581 억	+6,215 억
기관	+23,745 억	-1,579 억	-10,561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 강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AI의 기존 산업 위협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해당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AI 발전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반도체주가 반등하면서 지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만원, SK하이닉스는 100만원대에 도달하며 신고가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KOSPI는 2.11%, KOSDAQ은 1.13%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30.7조원, KOSDAQ은 약 13.3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2천억원 가량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화학과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했고, 금융과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를 2.4조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증권과 보험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중국산 ESS 배터리 수입 차단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반사 수혜 전망에 국내 2차전지주가 상승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 증가 기대에 따라 반도체, 전력기기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이어지며 증권, 보험주가 하락했습니다. 조선주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삼성SDI(+7.66%), SK하이닉스(+5.68%), 삼성전자(+3.63%)가 올랐고, 메리츠금융지주(-3.92%), HD한국조선해양(-3.07%), KT(-2.95%)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